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② 07. ① 08. ① 09. ⑤ 10. ③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② 17. ④ 18. ④ 19. ② 20. ②

### 1. 듀이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는 듀이이다. 그에 따르면 지성적 탐구로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할 때 인간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 듀이는 지성을 발휘하여 삶을 개선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듀이는 어떤 절대적 원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 상황에서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판단과 실천을 중시했다.
- ② 듀이는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듀이는 공동체의 전통적 관행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삶을 개선하고 사회가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성적 탐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듀이는 도덕이 현실의 삶을 개선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2.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그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 즉 시비(是非), 귀천(貴賤), 미추(美醜), 생사(生死) 등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장자는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장자는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장자는 인위적인 사회 제도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았다.
- ③ 장자는 도의 체득을 통해 절대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장자는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였다.

### 3. 석가모니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오온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오온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석가모니는 계율, 선정, 지혜를 모두 닦을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석가모니는 중생의 삶은 고통이라고 보았다.
- ④ 석가모니는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석가모니는 연기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

#### 4. 공자와 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공자이고, 을은 노자이다. 덕치(德治)를 주장한 공자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는 법령과 형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덕에 근본을 두고 예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치자가 백성을 힘으로 위협하지 말고 덕과 예로 이끌면 백성은 악행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안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공자가 강조한 인(仁)은 시비선악의 분별을 전제로 하여 옳음과 선함을 좋아하고 옳지 않음과 악함을 미워하는 사람이 행하는 분별적 사랑이다.
- ③, ④ 노자는 백성이 이익을 밝히고 욕심을 부리게 하는 정치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욕심이 없게 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⑤ 노자는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되는 소국과민을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 5. 위정척사 사상, 동도서기론적 개화사상, 동학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고, 을은 동도서기론적 개화사상가인 신기선이며, 병은 동학사상가인 최제우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서양의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동학사상은 반외세를 강조하였다. 반면 동도서기론적 개화사상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ㄱ).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기며 후천 개벽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동학사상만의 입장이다(ㄴ).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ㄷ. 서양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세 사상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 ㄹ. 보국안민을 위해 신분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동학사상만의 입장으로 B에 해당한다.

#### 6. 벤담과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이고, 을은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이다. 공리의 원리를 제시한 벤담은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벤담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의 쾌락 추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 ③ 밀은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가치 있으며, 존엄한 인간에게 적합하다고 보았다.
- ④ 밀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

### 7. 흄과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이고, 을은 칸트이다. 흄은 도덕의 영역에서도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흄은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 ③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④ 칸트는 자신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고 주장하였다.
- ⑤ 칸트의 입장이 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달려 있다.

### 8. 혜능과 지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혜능이고, 을은 지눌이다. 선종의 대표 사상가인 혜능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박에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혜능은 내 마음에 불성이 있음을 깨우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③ 지눌은 돈오하더라도 습기와 번뇌가 바로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지눌은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하며, 정과 혜는 둘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혜능과 지눌은 개인의 수행과 중생 구제를 모두 강조하였다.

### 9.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천리를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격물과 치지를 중시하였으며(ㄷ),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선한 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주희의 입장이 아니다. 그는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 ㄴ. 왕수인의 입장이 아니다. 그는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 10.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최고선인 쾌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ㄴ).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삶이 곧 덕 있는 삶이라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두 사상가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 삶을 중시했으며, 에픽테토스는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 ㄴ. 에픽테토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에 따르면 외부 사건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

**11. 순자와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순자이고, 을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육체의 기호인 형구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 선하기 어렵고 악하기 쉽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②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며,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사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⑤ 순자와 정약용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2.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이고, 을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이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하며 종교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 ② 사르트르에 따르면 정해진 목적이 없이 먼저 실존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 ④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이 진리가 될 수 있다.
- ⑤ 키르케고르만의 입장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다.

**13. 이이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이이이고,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라는 한 가지 길만이 옳다고 보았으며,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이는 이황에게 ②의 내용으로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이이는 도덕 감정인 사단이 일반 감정인 칠정의 일부라고 보았다.



---

**17. 민주주의에 대한 하버마스과 슌페터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심의 민주주의를 주장한 하버마스이고, 을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한 슌페터이다. 슌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치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하버마스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위해 공적 심의를 중시하였다.
- ② 하버마스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 ③ 슌페터는 정치는 정치 엘리트에게 맡겨야 하며 유권자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슌페터는 일반적으로 시민은 정치 엘리트에 비해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18.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듯이,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영혼을 지배해야 하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은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 덕과 같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플라톤은 각 사물의 이데아는 각 사물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은 신이다.

**19. 홉스, 루소,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루소이며, 병은 로크이다. 홉스는 절대군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았지만, 루소는 시민에게 주권이 있으며 이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홉스가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③ 루소는 모든 인간이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루소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④ 로크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로크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⑤ 로크는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로크가 제기할

---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20. 애국심에 대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공화주의 사상가이고, 을은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공화주의에 따르면 애국심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화국에 대한 자발적 헌신과 사랑이다. 또한 애국심은 법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열정이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공화주의는 애국심을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시민이 정치와 공적인 일에 참여할 때 생기는 열정이라고 본다.
- ③ 자유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 복지, 행복 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애국심을 진정한 애국심으로 본다.
- ④ 민족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올바른 애국심의 기준으로 헌법 정신을 제시한다.
- ⑤ 자유주의의 입장이 아니다. 자유주의에서 애국심의 대상은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국가이다.